

# 영호남 화합숲 된 광양 폐선부지

시, 도립미술관 개관 맞춰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

40억 추가 연말까지 녹지축 완성

광양시가 폐선 부지를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으로 조성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미술관 주변 경전선 구간을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으로 조성했다.

이 사업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던 경전선(1968년 개통)의 폐선 부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이곳에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예술공간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광양시는 시목인 고로쇠나무와 하동의 군목인 은행나무를 활용해 ‘동서화합 테마숲’을 조성하고, 벚나무·산수유·목련·단풍·동백 등 30여 종의 다양한 수목을 심어 사계절을 꽃과 단풍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등 총 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됐다.

광양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광양읍권 녹지축을 연차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유당공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폐선부지에 생활밀착형 숲을



광양시가 K-산림 뉴딜 사업으로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을 조성했다. <광양시 제공>

조성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LF아울렛, 운전면허시험장,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을 연결하는 4km의 녹지축이 완성된다.

또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저탄소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공고하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도시숲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 등 신규사업과 지속적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산단, 시민채용 가점제 확대를”

시, 30개사에 협조 요청...7곳 지역인재 채용 비율 58%

여수시는 청년 실업난과 인구 증진을 위해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시민가점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회원사 37개사 가운데 시민가점제를 도입한 7개 업체를 제외한 30개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약 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여수시민 채용가점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채용인원 563명 가운데 58%에 달하는 32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시민 채용 가점제를 도입한 업체는 GS칼텍스,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파인비화학, 금호폴리켄 등 7개 기업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한파 이겨낸 ‘구례 감자’ 수확 한창

생산량 30% 줄어

구례지역 시설하우스에서는 지난 1월 동해를 이겨낸 감자의 수확이 한창이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용방면 소재 시설하우스 1ha에서 감자 수확을 시작했다. 농가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수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례지역에는 33농가가 10ha 규모의 감자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한파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던 감자가 큰 피해를 입어 올해 감자 작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전망이다. 한파로 용방면에서만 시설하우스 26곳 9.6ha에서 약 3억원 규모의 동해를 입었다.

영하 10도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1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해 하우스의 수막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이 동해 원인이었다. 수막시설은 지하수로 수막을 만들어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동절기 난방 방법이다.

구례군은 피해 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대체



구례군 용방면 한 시설하우스에서 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파중에 드는 비용)를 지원했다. 또 피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해 영양제 투여 및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원을 병행했다.

구례군은 동해 재발 방지대책으로 온풍기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90대(1대당 200평 정도 활용) 정도의 물량이 신청됐으며, 조기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감자 수확 농가를 찾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각종 농산물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전국 명소 될 보성 산철쭉 군락지

‘3대 명산’ 일림산·초암산·계당산

1억5000만원 투입 생육환경 개선

보성군은 일림산, 초암산, 계당산 등 3개 명산을 대한민국 최대 산철쭉 군락지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성군은 산철쭉 군락지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철쭉 생육에 지장을 주는 산죽·싸리나무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이음이 불편한 숲길 정비 등을 통해 철쭉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작업은 산철쭉이 개화하는 시기인 4월 말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발 667m의 일림산 산철쭉 군락지는 100ha 정도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온 산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고 피톤치드 편백숲과의 대비가 환상적인 장관을 이뤄 ‘봄철 꼭 찾아야 하는 명산’으로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일림산 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 불거리와 체현거리를 보강했다. 이는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들여 일림산 중간지점 산림 습지에 생물유전 자원 보호와 등산로를 병행한 습지 관찰 데크를 설치한 사업이다.



보성군이 일림산·초암산·계당산의 전국 최대 규모 산철쭉 군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한다. 사진은 초암산 산철쭉 군락지 전경. <보성군 제공>

해발 576m의 초암산은 산철쭉 군락지에 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새벽 안개의 멋진 풍경이 일품이다. 북내면에 위치한 계당산(해발 580m) 산철쭉 군락지는 아릅드리 소나무 숲과 보성강이 한 폭의 그림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에서 보성만큼 큰 면적

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산철쭉 군락지가 없다”면서 “산림자원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미래를 보며 투자해 세계적 산림관광자원으로써 산철쭉 군락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여수에 전남 첫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내달 1일 학동에 개소...212㎡에 휴식공간·회의실 갖춰

여수시는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다음달 1일 문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31일 개소식을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유동 인구가 많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지사 인근 건물 3층에 마련됐다. 총 212㎡(64평) 면적에 실내 휴식공간, 여성휴게실, 회의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충전과 인터넷 검색 같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의자가 구비돼 있어 불편한 대기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무 및 휴게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